부산원광사 인오스님 롯데 야구단서 감사패 수상

부산 원광사 주지 인오스님이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승호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지난 11월28일 부산 사직구장 내 감독실에서 인오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오스님의 감사패 수여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의 건강증진과 실력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선수단이 한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한 것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인오스님이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무렵이다. 롯데가 2006년 7위라는 성적으로 부진할 때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을 축원하기 시작했다. 불공 때마다 홍성흔, 전준우, 손용석 선수 등 불자 선수들을 위한 축원을 빠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광사 내 종각에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열렬한 후원을 보내고 있다.

2005년 인연…선전축원 시작
양승호감독도 사찰 찾아 기도
내년 개막전에 스님초청 계획

양승호 감독 역시 지난해 10월 신임 사령탑으로 취임하면서 인오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시즌 초반 성적 부진으로 롯데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낸 양승호 감독은 원광사를 참배하고 인오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스렸다. 원광사를 참배하고부터 부진했던 성적도 점차 좋아지고 양승호 감독의 믿음도 커지게 됐다. 이후 양승호 감독은 틈나는 대로 원광사를 찾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불자 선수들도 시합을 앞두고 사직구장 인근에 위치한 원광사를 찾아 부처님을 참배하는 등 원광사와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양승호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올해 초반 감독에 부임한 이후 성적 부진으로 힘들 때 원광사를 찾아 부처님을 참배하면서 스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부처님을 참배하고 나니 믿음도 생기고 성적도 향상돼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승호 감독은 2012년 프로야구 개막전에 인오스님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이에 인오스님은 선화와 달마도 등을 양승호 감독에게 선물한 뒤, 선수들과의 소통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지훈련에 앞서 선수들과 함께 원광사를 찾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오스님은 "운동선수들에게 종교적 믿음은 경기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와 선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부산=엄태규 기자

양승호 롯데 자이언츠 감독(사진 왼쪽)이 부산 원광사 주지 인오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티베트인의 염원 속히 이뤄지길…"

1일, 서울 조계사서 소신공양 추모제 봉행

조계사에서 거행된 추모제 모습.

지난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온 몸이 불에 휩싸인 한 스님이 육신이 타들어가는 고통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꼿꼿이 서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이 스님은 최근 간쯔 장족자치주 번화가에서 소신공양한 티베트 비구니 치우샹 스님. 스님은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며 스스로의 몸을 온전히 불살랐다. 경내에 모인 몇몇 불자들이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지금까지 소신공양한 스님과 불자는 총 13명. 그러나 이들의 항거는 끝나지 않았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티벳하우스코리아는 이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티베트인들의 희생을 애도하고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불교인으로서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자유가 올 수 있기를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추모제는 종교를 초월해 하루속히 티베트인들의 염원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 이강서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신부는 "폭압적인 문화말살 정책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스님들의 소신공양이 너무나 숭고해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중국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국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지관스님은 호소문에서 "한편에선 중화제일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대까지 동원해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만행은 세계적인 비난만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모기도는 텐진남카 스님과 텐진진빠 스님을 비롯해 네팔에서 온 우르겐 라마 스님, 말레이시아에서 온 준상스님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염원하며 촛불기도 의식을 끝으로 추모행사를 마쳤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교회가서 목탁치고 염불해도 되나

동국대 교내 선교활동에 대해
네티즌들도 비판 여론 높아
정각원 법당에 대·소변 배설
코끼리 등 방화 등 사례도 소개

최근 동국대가 교내 선교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 등에서도 배타적 선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단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 갈등을 야기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디 'aurumsh'는 "남의 종교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선교행위는 교회에서 선교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인지, 교회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시켜서 인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아이디 'oong8002'는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임을 뻔히 알면서 무슨 행패냐"며 "교회 찾아가서 목탁치고 염불하면 되겠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아이디 'mayluke'는 "MB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안하무인적인 선교행태를 보면 예수님 사랑의 끝자락이라도 아는지 의문"이라며 "개신교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패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동국대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은 그동안 교내에서 벌어진 타종교인들의 몰지각한 선교행위에서 비롯됐다. 정각원은 지난 11월30일 "불교는 타종교에 대해 무시를 하지 않지만, 현재 캠퍼스는 기독교 선교의 장이 되어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배타적인 작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각원은 법당 안에 대소변을 배설하고 문짝이 파손되거나 제등행렬에 사용할 코끼리 등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행위 등을 밝혔다. 심지어 수험생과 감독관 이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대학입시 수험장에 불법적으로 미리 들어가 선교 포스터를 부착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선교사들이 교내에 들어와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화장실과 강의실 등에 기독교 포스터를 부착하는 일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한편 교내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개신교인들을 제지한 동국대 교법사 제정스님은 업무방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주제로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김형주 기자

"여러분은 나눔결사의 실천주체"

총무원장 스님,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서 격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화엄경에 담긴 말씀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이 없는 행과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일 서울 AW컨벤션센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테마로 열린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근래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의 위기 속에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게 논의되는 가운데 종교의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회참여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나눔결사의 역사적 실천 주체로서 불교중흥과 나아가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는 큰 걸음에 동행하는 분들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포럼 열고
자비나눔 유공자도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스님)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재심호계원장 법등스님,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최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장관은 "나눔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인 겨울에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불자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비나눔 유공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가졌다. 또 정율스님의 축하공연과 방송인 이상벽 씨의 자성과 쇄신의 나눔결사 선언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자비나눔대축제에 앞서 '나눔결사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저변화 전략'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이 열렸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붓다의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와 나눔결사'를 기조발제했고, 조기룡 동국대 교수와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과 '사찰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하정은 기자

"북한 동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15주년 후원의 밤 개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를 도와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영담스님)은 지난 11월29일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창립기념 및 후원의밤을 개최했다.

1996년 출범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동안 평양과 개성, 금강산 등 433회에 걸쳐 6382명이 북한을 방문해 인도적 지원을 펼쳤다. 대북지원금만 898억1157억원에 이른다.

이날 상임공동대표 영담스님은 인사말에서 "현재 북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이용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 축하합니다 ▮

불교선재마을의료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가 서울시의사회의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사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매년 참 의료인을 발굴 수상하는 한미참의료인상의 10회 수상자로 결정된 선재마을의료회(회장 장연복)는 서울 봉은사와 부천 석왕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와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 북한약품 무료지원 등의 의료사업을 10여년간 시행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참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는 10회 수상자로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를 선정했다"며 "연간 3만여명의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를 행하고 연변자치주 화룡현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등의 해외무료진료 활동 폭을 넓혀온 200여 선재마을의료회 의료진의 공로를 치하한다"며 공적 사유를 밝히고 수상금 2000만원을 수여했다.

서울시의사회 창립 기념행사를 겸한 지난 1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의 시상식에는 1500여명의 의료인과 보건복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999년 창립된 불교선재마을의료회는 이날 장연복 회장과 여오숙 부회장을 비롯해 강경구 김지태 정낙균 노영 이정균 선재의료회 이사와 전임임원인 김광수 국제포교사회 부회장(치과) 유영재 원장 등 의료인들이 참석해 수상을 함께했다.

지구촌공생회 송명례씨 '이달의 나눔인' 영예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상을 수상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미얀마와 네팔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지난 11월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0회 이달의 나눔인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송명례 할머니(사진)는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송 할머니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평생 모은 전 재산 2억 2000만원을 네팔과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했다. 하지만 자신은 단칸방에 홀로 살면서 평소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한 돈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십 수 년 이상 쓴 고물 라디오도 최근에 겨우 바꿀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는 분"이라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후원금으로 네팔 룸비니에 스리 아다샤 송명례 초등학교를, 미얀마 바간 밍글라파지 초등학교와 파욱쉐핀 초등학교를 건립했다.

이미 전 재산을 기부했지만 스스로 나눔이 부족하다는 송명례 할머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인재가 되어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수익사업 통한 공익실천"

제2교구신도회, 사회적 기업 창립

교구신도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이 창립됐다. 제2교구 용주사 신도회(회장 민학기)는 지난 11월 27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센터 경기홀에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우리세상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세상은 대표이사에 김명재씨를 선임하고 주식공모를 통해 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창립됐으며, 인터넷 마트를 개설해 불교계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공익적인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불교의 연기법을 통해 말하는 공업을 실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며 "사회적 기업이 성공해 보다 많은 신도단체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용 경기도의회 불자회장은 격려사에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제도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적기업 우리세상에 불자들

종지협, 시각장애인 음악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는 지난 11월2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동 음악회 '세상을 품어라'를 개최했다.

제15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각장애인 연주자 12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7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은 약 90분 동안 모든 곡을 외워서 연주하는 등 감동의 무대를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